

150억원 투자 100여명 신규 고용 창출

지엔지엔터프라이즈, 익산제3산단 분양계약 체결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16일 무봉제(seamless) 의류 선도기업인 (주)지엔지엔터프라이즈(브랜드명 '세컨스킨')와 제3일반산업단지내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분양계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형 공장에서 벗어나 익산 제3일반산단 2만328㎡ 부지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여 100여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체결된 투자협약(MOU)에 따른 투자를 본격 추진하는 것으로서 내년 상반기 내 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지엔지엔터프라이즈에 따르면 익

산 이전을 통해 디자인, 원사 선정, 프로그래밍, 편직, 염색 등 일련의 일괄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5년 내 연매출 1,000억원과 美 아마존 온라인사업 및 OEM/ODM 사업 확대를 통하여 수출 5,000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단순 제조 공장만의 개념이 아닌 부지 내 공원, 휴식 공간 조성 등을 통해 패션업체로서의 세련되고 편안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현율 시장은 "투자협약 시 약속대로 조속하게 투자를 이행하여 주신 회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익산시에서도 섬유산업의 부흥을 선도함을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게 공장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김성중 익산시장 예비후보

"구태의연한 정치행태 분연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 전북도당 1차 경선을 통과한 김성중 익산시당 예비후보가 경선과정과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중 예비후보는 16일 익산시청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은 능력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익산의 정당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잘못된 정치관행과 구조를 굳이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지 않다"면서 "도덕성과 과거행적으로 취약한 후보가 걸러지지 않은 공천시스템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 동력이 없는 기존 정치인의 여과 없는 후보선출로 우려되는 결과를 생각하니 가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과거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과거 퇴폐업소를 운영하고 도박전과가 있는 후보와 도의원 과정에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도덕성은 서류와 면접에서 다 걸러질 것으로 믿었다."면서 "이 같은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갖고 후보들이 뭉치게 됐다"고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예비후보로 같이 뛰었던 전완수·황현 후보가 뜻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와 분연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5억 5800만원을 확보해, 노후 경유차 DPF 20대, 건설기계 DPF 20대, PM-NOX 동시저감장치 20대, 총 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제작 경유차량이며, PM-NOX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DPF 지원대상은 2002~2007년에 제작된 차량으로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신청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 협의 후 계약하면 이후 제작사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구조 변경 등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년저감장치 부착 시 향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 보건소

GM군산공장 근로자·가족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와 관련 근로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 시 보건소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근로자와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협력업체 등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접수를 받고 있다.

심리상담 접수 후 전문상담사의 가정방문이 이뤄져 고위험군 선별검사가 시행되며 위기관리가 필요할 경우 정밀검진과 치료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한국GM 군산공장

근로자 및 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관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신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및 검사를 연계 추진한다.

심리상담은 보건소 마음건강클리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마음건강클리닉(☎ 445-9191.451-08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 모현동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

익산시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구)모현동 사무소 옆 도로 총 연장 55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주거 밀집지역에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개선이 시급하여 구간 아파트건설로 교통량이 증대되어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5월에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토지 보상 관련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이해설득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올해 4월 도로개설을 완료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군산시드림스타트는 양육 기술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대상가정 영유아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통해 부모자신과 자녀 특성 이해하기, 교화적인 부모역할 익히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육아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양육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것

로 기대된다.

강사로 나서는 김경신 서해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양육기술에 대한 기본강의를 비롯해 감정조절유형, 의사소통유형 등의 검사와 놀이·실습 등을 함께 병행한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정립과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 등이 중요하다"며 "드림스타트는 대상가정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끝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된 동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5년 5월 사범대학 입구에 추모식수를 하고, 두 동문에게 특별사회봉사상을 수여했다.

"훌륭한 교사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세월호 희생 고창석 단원고 교사 가족, 원광대에 장학금 기탁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창석 단원고 교사 가족이 고 교사의 모교인 원광대에 장학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93학번인 고 교사는 2000년 교직 생활을 시작해 경기 안산 원일중, 상록중, 원곡중을 거쳐 2014년 3월 단원고에 부임했으며,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인성생활부 교사로 수학여행 동행 중 침몰하는 배에 끝까지 남아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빠져 나오지 못했다.

오랜 기간 미수습 상태였던 고 교사는 유해 일부가 2017년 5월 세월호 선체 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사고 발생 3년 7개월 만인 2017년 1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으며 가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학

생들만을 생각한 고인의 마음을 따라 참사승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의금을 모교에 기부하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했다.

원광대 체육교육과 동문회는 고창석 동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교정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16일 고 교사 가족 김도중 총장 학과 교수 및 재학생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함께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체육교육과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고창석 장학금'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 교사 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김도중 총장은 "고창석 동문은 원광대의 정신이 되었다"며, "오늘 제막한 이 추모비가 고창석 동문

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거대한 나무의 씨앗이고, 뿌리로서 고창석 동문이 보여준 품격과 그를 기리는 정신은 원광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학교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끝까지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희생된 고창석(2000년 체육교육과 졸업), 이해봉(2007년 역사교육과 졸업) 동문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5년 5월 사범대학 입구에 추모식수를 하고, 두 동문에게 특별사회봉사상을 수여했으며, 고창석, 이해봉 강의실을 만들어 선배 교사의 고귀한 뜻과 참고교육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행복동행

꿈·환·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